

그 사람이 너였으면...

어떠한 사람인지는 나도 잘 몰라.  
그저 너이기만을 바래왔던걸 느꼈을 뿐이야.  
간절히... 간절히...  
내가 기다리던 그사람이 너이기름.  
왜냐면  
내가 널 무척 좋아하니까...



참 부모님께 친필로 감사드립니다. 주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 
안녕하세요. 참부모님. 저는 즉하연입니다. 참부모님은 책  
한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 가서 북한  
에 제일위에 있는분을 선택을 시켜서 대단한 것같  
아요. 또 참부모님은 미국, 일본, 프랑스, 아프리카 등을 정  
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늘부모님께 말씀을 전한다는 모  
습이 멋진데요. 그리고 정국을 돌아다니면 다리가  
아프고, 목도 아프신데 참 참이며 힘내 주셔서  
감사합니다. 사람들의 선택하는 것은 힘든 일  
이신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참부모님  
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하늘부모님의  
말씀을 아는 분도 많아요. 그럼 안녕히 계  
세요.  
즉하연 오름

